



2018년 9월 9일(제892호) 연중 제2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터진 입이 아니라 열린 입”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또 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면,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열린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 나의 열린 귀를 통해 듣게 되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은 반대로 닫혀버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나의 터진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 때문에 다른 이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기도 하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았다면,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말은 그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 또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안 보이면 좋겠고, 귀로도 딱 들어야 할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닫혀버려서 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입도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닫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눈이 열려 있고, 내 귀가 열려 있고, 내 입이 열려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보고, 듣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닫혀버린 귀와 묶여 버린 입을 다시금 열어 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는가?’라는 질문은 눈과 귀와 입을 열린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물음입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느님을 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 들은 하느님을 입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은 열린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며 발견하고,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아파하는 이들의 부르짖음과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들을 수 있다면, 외로움에 허덕이며 마음이 차가워진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우리 눈과 귀와 입은 그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과 귀와 입, 그에 맞게 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터진 입이 아니라 열린 입입니다.



이재경(사도요한) 신부
인천해군(해군 2인사)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이사 35,4-7ㄴ
- 회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제 2 특 시** 야고 2,1-5
-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마르 7,31-37
- 영 성 제 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연이 율리아나



성인명: 김연이 율리아나 (金連伊 Juliana)
 신분: 양인,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김연이(金連伊) 율리아나는 양인 출신의 부인으로서, 한양에 살 때 한신에 아가타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리고 1795년 이후에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의 집에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김 율리아나는 이때부터 자주 교리 강습이나 미사에 참석하면서 점차 신심이 깊어 갔다. 또 ‘천주교의 매파’(媒婆 : 중매인 노파)라고 불릴 정도로 교리를 전하는 데 열중하였으며, 얼마 안 있어 그녀의 이름은 교우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노력하는 동안 김 율리아나는 ‘폐궁’이라고 불리던 양제궁을 자주 드나들었다. 당시 그 집에는 왕실의 친족인 송 마리아와 그녀의 며느리 신 마리아, 궁녀 강경복 수산나 등이 거처하고 있었다. 김 율리아나는 이들과 사귀면서 자주 그들을 안내하여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시켰으며, 이러한 일로 한때는 그녀의 딸이 양제궁에서 나인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800년 12월 박해가 시작되자, 김 율리아나는 여회장 강 골롬바의 부탁을 받고 김계완 시몬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다. 이어 다음 해 초, 공식적으로 박해령이 내려진 뒤에는 황사영 알렉시오가 그녀의 집으로 피신해 왔고, 이로 말미암아 그녀 자신도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김 율리아나는 얼마 안 있어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내 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녀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형벌과 문초를 받았지만,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약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엄한 형벌 가운데서도 “만 번 죽더라도 천주교를 믿어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런 다음, 김연이 율리아나는 강완숙 골롬바, 강경복 수산나, 한신에 아가타 등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비가 내렸습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내려놓고
 한참을
 내리는 비에
 몸을 맡겨
 봤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님께 맡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상화이야기

상체 보관소



직지 미상, 1537-38

대리석, 높이 12.5m

성 레오니르도 성당, 조우라레우(벨기에)

15세기와 16세기에 이르러 성체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모신 분이 성모님이라는 생각에 성모님의 옥좌 및 성모님이 계시는 공간을 감실처럼 표현하는 것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감실 자체를 교회 속에 작은 교회처럼 큰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성체를 모시는 감실의 중요성이 성체 성사의 강조와 함께 병행되어 정교한 기술로 제작된 감실들이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이 감실은 마치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처럼 고딕 스타일로 제작되었다. 12m에 달하는 이 감실은 제대 옆쪽에 위치하여 미사 때 사제 접근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는데, 신자들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언제나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성체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감실들은 칼뱅주의자들의 성상 파괴 운동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는데, 어떤 목격자들은 생명을 가진 나무(나무 모티브인 고딕 스타일을 의미한다)가 잘리는 듯한 느낌에 고통스러웠다 고도 적었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3주일: 무열대 현판십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장(31사단) 성당 사목방문 및 목포해군(3합대)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9월 9일(주일)
- 흑룡(해병 6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9월 11일(화)
- 신임 군중신부 연수
 때·곳: 9월 11일(화)~13일(목),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군인신학생 피정
 때·곳: 9월 11일(화)~14일(금),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2018년 천주교 서울순례길 아시아 주교단과 함께 하는 미사
 때·곳: 9월 13일(목) 18:00, 명동 성당
- 교구장 주교성성 제8주년
 때: 9월 15일(토)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나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